

노동조합, 전국 7개 지방본부 및 실·처별 화상회의 통해 현안 공유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5월 3일(월), 7개 지방본부 위원장, 중앙본부 실, 처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4월 실적을 보고 받고 5월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각 지방본부의 실적 및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한 뒤 “일각에서 재량휴가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조합원들께서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한 뒤 “재량휴가 건은 노사합의 된 사안으로 각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 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위원장, “코로나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철저한 방역대책 세워 현장 상황 점검하라” 당부

이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매월 시행되는 회사의 경영 설명회가 지방에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한 뒤 “지방본부에서도 회사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며 “노동조합 지방본부

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경영설명회가 연착륙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찾아가는 노동조합의 한 형태인 ‘이동정착실’이 활성화 되도록 지방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여 현장 업무개선에 대해 발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계속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 IT 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의 향후 일정도 공유했다. IT연맹은 오는 6월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의회와 공동협약 체결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이하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과 ‘공동실천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당사자 조직을 강화하고, 노동권과 사회안정망을 확보하는 데 이번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날 협약시에는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